

800조 반도체 투자에 광주권 ‘들썩’… 입시·지역경제 ‘꿈틀’

전남대 공대·지스트 반도체 지원 ↑
켄텍 31.13대 1 역대 최고 경쟁률
소부장·협력사 집적 기대감도 확산
청년 일자리·지역 정착 효과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전남광주권 대학입시와 지역경제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 건설에 앞서 반도체 학과 지원이 늘고 도시 개발과 연관기업 집적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는 등 이른바 ‘나비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7일 전남광주특별시 내 대학별 입시결과 등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6.65대 1로, 지난해 6.30대 1보다 높아졌다.

특히 공과대학은 713명 모집에 46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71대 1에서 6.47대 1로 크게 상승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공대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반도체 분야 상승세가 확인됐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 경쟁률은 6.40대 1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56대 1로 경쟁 뛰었다. 지원 증가율만 놓고 보면 무려 80.6%다.

한국에너지공단(KENTECH·켄텍)은 100명 모집에 3113명이 몰려 31.13대 1로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24.33대 1보다 28%나 상승했다.

켄텍 역시 “서남권 반도체 벨트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학부 연구중심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야 했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

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기관, 협력업체들이 함께 들어서면 대학 교육과 지역 내 취업을 연결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동반 진출도 단연 관심사다. 7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차 반도체 소부장 전략포럼에는 LG이노텍과 LG전자, 텔레칩스 등이 참여해 기존 소부장 육성 사업과 대규모 신규 팹 투자를 연결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심철의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반도체 특성상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협력사, 특히 1차 벤더(협력사는 20분 안

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며 “메인 공장 주변으로 상당수의 주력 협력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팹 건립에 따른 낙수효과가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온다.

관련 기업 신입·경력사원 모집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스펙자들이 몰리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긴급 연구 용역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기업지원 공고 등 관련 용역과 공모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세계유산축전 안동’ 개최

경북도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 세계유산 4곳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사)안동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사유의 세계유산, 통섭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6시 하회마을 만송정 숲 백사장에서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 온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생활임금 1만2729원 확정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2029원 높은 1만2729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2275원) 보다 454원(3.7%) 인상된 것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는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4061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에 소속 돼 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공동 대응

연내 특별법 제정 2028년 출범 목표
공공기관 이전·핵심기관 유치 협력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시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과 임인환 대구광역시회의의장은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차 회담을 갖고 양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11월 중 경북·대구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추진단 기능 강화와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공동 발전전략 수립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 성장 기반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의장이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차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에 공동 대응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인천, 피지컬 AI로 제조·물류 혁신 시동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실증센터 구축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인천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제조·물류 혁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물리적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기술의 검증부터 산업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돕는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는 이달 중 실증센터 설계와 수요조사를 마친 뒤, 내년 4월까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여 관내 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 등에 들

어서는 실증센터는 현장 재현 중심의 ‘모사환경 실증존’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가상환경 실증존’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모사환경 실증존’은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자율 이동로봇, 협동로봇, 인공지능 비전검사 장비 등을 연계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간이다.

‘가상환경 실증존’은 고성능 인공지능 학습 서버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을 반복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업별 독립적인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안동, 선유줄불놀이 外人 관광상품 ‘인기’

올해 外人 관광객 1000명 유치 전망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인 선유줄불놀이를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연결하며 올해 총 1,0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한 회차에 외국인 관광객 약 250명이 안동을 찾았다. 공사는 현장 확대행사를 열고 이번 방문이 재방문과 향후 회차 모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사는 연초부터 일본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정해 현지 박람회 등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방문 이후 안동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지자 6월

일본 주요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와 7월 도쿄·오사가 관광홍보설명회를 추진하며 상품화와 모객 기반을 다졌다.

일본에서 확인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화권과 구미주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유줄불놀이 관광을 위해 안동을 찾고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선유줄불놀이의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 경북 고유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한·일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경상북도와 일본을 잇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양국 관광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김진곤 기자

영양전통시장, 특화 먹거리로 활로 찾는다

지역 농특산물에 발효 기술 접목
고등어·가오리찜 등 대표상품 개발

영양전통시장이 지역 농특산물과 발효 기술을 결합한 특화 먹거리 개발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양전통시장상인회는 세계명인 임재은 대표와 협력해 차별화한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장터 한마당에서 첫선을 보여 군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겠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영양전통시장상인회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단순히 방문객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와 브랜드 상품을 앞세워 시장의 경쟁

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상인회는 두랑농업법인 대표이자 세계명인인 다중발효 전문가 임재은 대표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농특산물에 전문 기술을 접목하고 전문가와 생산자, 시장 상인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발한 상품을 시장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고 판매해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첫 개발 품목은 다중발효 고등어와 가오리찜, 편육, 막걸리 등이다. 상인회는 이들 상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를 추가 개발해 군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시장 대표 상품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산시

뷰티, 말레이시아 수출길 넓혀

경산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6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 & 코스모뷰티’에 지역 유망 뷰티기업 6개사가 참가해 320만 달러(약 43억 5000만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80만 5000달러(약 11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경산시는 말레이시아의 K-뷰티에 올해 처음 전시회에 참가했다. 현지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통해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과 수출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아산시

대규모 투자 맞춰 산단 확충

충남 아산시가 대규모 기업 투자에 발맞춰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총 13개소, 9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는 산업단지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기업 입주와 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배후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방 갈매, 배방, 아산영인대인더스, 영인, 배방스마트 복합그린, 둔포밸리 등 6개소, 423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양수영 기자